

이 자료는 2023년 2월 7일(화)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동정자료



■ 매수 : 2매 ■ 사진 : 일정종료직후 제공 웹하드(press.webhard.co.kr) ID/PW:press1

담당 :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

언론담당관	2133-6205	신문팀장	2133-6207	담당자	2133-6253
박 경 환		천 세 은		조 향 윤	

오세훈 시장, 서울주재 외신기자 대상 '신년 간담회'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(화) 15시 서울시청 대회의실(3층)에서 외신기자 대상 '신년 간담회'를 연다. 미국 CNN, 중국 인민일보, 일본 아사히신문 등 30개 외신의 서울주재 특파원 30여 명이 참석한다.
- 이번 신년 간담회는 서울시가 전 세계 20개국, 102개 매체, 302명('23. 2월 기준)을 회원으로 보유한 '서울외신기자클럽(Seoul Foreign Correspondents' Club)'을 초청하며 이뤄졌다.
- 이날 오 시장은 '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'을 주제로 한 영어 프레젠테이션(시청각설명회)을 통해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,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. 기자회견은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.

■ 「2023 서울주재 외신 기자 간담회」 주요 일정

- 15:00~15:05 (5 ´) : 외신기자클럽회장 인사말 (최재웅 회장)
- 15:05~15:30 (25 ´) : 오세훈 서울시장 PT 발표
- 15:30~16:00 (30 ´) : 질의 및 답변, 맺음말

※ 내신 매체는 사전 신청을 완료한 기자에 한해 취재 가능합니다. 양해바랍니다.

※ 관련 부서 : 언론담당관 언론지원팀장 구인모 ☎2133-6241